

# EDITORIAL

---

이번 제34권 제3호에 투고된 논문은 총40편이다. 이 중에서 2편은 본심사 회부 전 적합성 심사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아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심사에 넘겨진 38편은 편집마감일 현재 게재 16편, 게재불가 11편, 심사진행 11편으로 판정되었다.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11편의 논문이 있어 현재로써는 게재율을 산정할 수 없다.

이번호에는 19편이 게재된다. 이는 전호에서 이월된 5편의 논문과 이번에 게재 판정된 16편 중 다음 호로 개재가 이월된 2편을 제외한 14편을 합한 수치이다. 게재 되는 19편을 영역별로 구분하면 보건 8편(42.1%), 사회복지 11편(57.9%)이다.

게재된 논문은 모두 관련 분야에서 새로운 문제의식과 연구방법론을 제기하거나 관심을 촉발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용우의 「가구소득과 아동기의 건강 불평등」은 아동기를 포괄하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이 건강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한 의미 있는 연구로서 향후 건강과 소득 간에 미치는 상호영향력에 대한 학문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호의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 다인 가구와의 비교」는 신선한 주제와 대표성 높은 자료분석이 눈에 띄는 연구로서 중장년 1인 가구의 삶에 대한 사회정책적, 정신보건학적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이 외에도 가구소비 규모탄력성을 다양한 차원별로 분석한 김진·황남희 연구, 소득수준에 따른 압진진 이용형평성을 다룬 허종호·황종남의 연구,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노인의 자살을 분석한 이현경·김미선·최승순·최만규의 연구 등도 새롭고 흥미로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매 분기 투고되는 40여편의 논문을 심사하고, 게재하는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다. 100여분이 넘는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와 재심사, 그리고 최종 판정을 내리기까지 거쳐야 하는 과정은 힘들고 어렵지만 학문 발전을 위한 편집위원들의 사심 없는 노력과 밤잠을 설쳐가며 일에 매진하는 편집간사진의 열정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학계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과 성원이 있기에 한 편의 학술지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14년 9월 30일

편집위원장 박능후